



제조업체들, 물류아웃소싱 증가추세

최근 국내 우수 제조업체들이 물류부문 아웃소싱을 늘리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기업물류서비스 동향과 물류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GM대우, 한국 P&G, 웅진그룹, 넥센타이어, 신도리코 등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들이 자사의 물류업무를 제3자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 물류부문 전문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표1. 국내 기업 물류아웃소싱 확대 동향〉 '06년 5월 기준

구분	최근동향
웅진그룹	- 웅진그룹 계열사웅진닷컴, 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 개발, 웅진식품 물류업무 전량을 CJ GLS에 아웃소싱 - 그룹 물류인력 318명 중 90.3%인 287명을 CJ GLS에 파견
GM대우	- 자동차 수출관련 KDKnock Down, 반제품선터를 한진에 운영위탁 - 국내생산 부품 등을 전세계 14개국 GM그룹 현지 공장에 납품
한국 P&G	- 한국통운을 통하여 WMS, GPS, PDA 등 물류기술 도입 - 화주 물류비용의 이익을 실시간 추적, 효율적인 재고 및 입고 관리위탁
삼성전자	- 삼성전자광주는 한솔CSN에게 통합적 3자물류체계 구축 위탁(일부위탁)
화승	- CJ GLS에 판매물류 등 전과정 아웃소싱으로 12% 물류비 절감 - 연간 23억원의 수익개선 효과
넥센타이어	- 한진에 물류위탁 - 물류센터 통합(30개→8개)으로 비용 30% 감소
신도리코	- 보안포장 도맡 물류전문업체에 위탁

보고서는 "물류아웃소싱을 늘리는 기업들은 고정비가 큰 물류시설을 외부화함으로써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서비스의 품질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체들이 생산 등 핵심역량에만 집중하게 돼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물류기업에게 물류를 맡기면 혜택을 주는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표2. 제3자 물류업체 서비스 강화 주요 전략〉 '06년 5월 기준

구분	3PL 물류서비스 강화전략
대한통운	- 05년말 택배, 화물지역, 육상운송 전문기로 구성된 3PL 본부신설 - 업종별, 최주별 특화된 서비스 제공
한진	- 제조업지원을 위한 '랜드메이저링' 물류서비스 제공 목표 - 한진해운, 대한항공 등 수송연계로 글로벌 3PL 서비스 제공
한솔CSN	- 중국 물류사업(상품수입 등 소싱물류) 편칭과 해외물류사업 대상지역을 적극 확대 - 지속적으로 해외우량 파트너와의 제휴로 글로벌 역량 강화
한익스프레스	- 3PL 영업전략 강화를 위한 전략마케팅센터 신설
CJ GLS	- 다국적 물류기업인 이코다사의 전격인수로 해외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 RFID 등 신기술의 물류서비스 지속적 응용
한국통운	- 다국적 기업P&G, 필립모리스 등만을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3PL 조직 신설

물류아웃소싱이 늘어남에 따라 2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3자물류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보고서는 "연간 2조 5천억원('05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3자물류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며, 이에 따라 물류업체간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제3자물류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국내 물류산업의 합리화·고도화가 촉진돼 물류산업이 제조업 지원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는 "물류아웃소싱 증가와 함께 3자물류업체들의 전문화로 국내 화주기업들의 원가절감, 소비자 니즈 만족도 제고 등 공급사슬(Supply Chain) 전반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3자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완책이 하루 빨리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물류 아웃소싱의 경제적 이점과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화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화하는 한편 제3자물류 성공모델 형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3자물류 활성화 차원에서 물류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M&A 활성화 및 전략적 제휴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하며, 제조업체의 물류아웃소싱에 따른 추가적인 세원 노출 부분에 대해서도 한시적이거나 부가가치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유통물류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우리기업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물류아웃소싱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며, 국내 물류시장의 다단계적 난립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문물류업체에 의한 제3자물류 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하며, 정부도 세계적인 제3자물류기업들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각종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우**